

정보통신표준위원회 의장단 워크숍을 마치고

유성필
TTA 표준본부

우리협회에서는 정보통신표준위원회 및 정보통신표준 관련자를 대상으로 표준화활동 점검, 위원회활동 활성화방안에 대한 토의 등을 통한 정보통신 표준화위원회 자율운영 유도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정보통신 표준화위원회 의장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1. 개요

2001년 2월 23일(금)부터 2월 24일(토)까지 여주 일성 남한강콘도에서 정보통신 표준화위원 및 관련자 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통신 표준화위원회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총 3개의 세션과 각 위원회별 토의로 진행되었으며, 보다 상세한 일정을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2월 23일(금)	
세션 I	국제표준화 동향과 우리의 대응전략(서울대, 최양희) 정보통신표준 활용실태 조사결과(인텔리서치, 권혁주/TTA, 김선)
세션 II	TTA 전자화체계 활용을 통한 표준화 활동요령(TTA, 배우경) TTA 중점표준화 추진방향(TTA, 장명국) 표준화위원회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TTA, 김선욱)
각 위원회별 토의	
2월 24일(토)	
세션 III	표준화활동 활성화 방안 종합토의(각 위원회 토의결과 발표 포함)



2. 워크숍 결과

첫날 협회 사무총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워크숍은 세션 I에서 서울대 최양희 교수가 “국제표준화 동향과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그리고 “정보통신표준 활용실태 조사결과”에 대한 발표가 인텔리서치와 우리협회에서 각각 있었는데 인텔리서치에서는 정보통신표준이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또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우리협회에서는 TTA인터넷 웹 상에서의 표준 다운로드 활용실태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세션 II에서는 협회 정보망운영부에서 “TTA 전자화체계 활용을 통한 표준화활동 요령”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TTA 웹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할 예정인지에 대한 설명과 표준본부장으로부터 “TTA 표준화 발전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TTA의 현황과 문제점, 표준화 발전방향 그리고 올해의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첫날 발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표준화위원회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우리협회에서 1999년과 2000년도의 정보통신 표준화위원회 활동현황을 분석한 내용으로, 해당위원들의 많은 질의와 TTA의 답변이 오갔으며 결국 이것에 대한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세션 II가 끝난 이후에는 위원회별 위원회 발전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이 있었으며, 간단한 단합대회가 있었다.

둘째날 세션 III에서는 전날 각 위원회별로 토의한 내용을 종합토의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다음은 위원회별 토의내용(주로 TTA에 대한 요청사항이 주를 이루었다) 및 이에 대한 TTA의 답변요약이다.

첫째, 외부의 요구사항(위원회 등)을 적극 수용한 실용 표준제정 및 표준홍보가 필요하며 [기

획전략특별위원회(손흥), 서비스 및 단말 기술위원회(고기원)], 이를 위해 신문사 등과 홍보네트워킹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홍보예정.

둘째, 급변하는 기술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표준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서비스 및 단말기술위원회(고기원)], 이를 위해서 디팩토 표준 및 영문 표준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함.

셋째, 중복투자를 배제하고, 효율적이며 적극적인 표준화활동을 위해서는 정보통신 표준화위원회와 국내 표준화포럼과의 구체적 연계방안이 필요하며 [통신망기술위원회(이상홍)], 그에 대한 연계방안을 모색중임.

넷째, 시장창출을 위한 표준개발 주체로 표준화위원회를 활용하고 표준개발비(국책과제) 지원이 필요하며 [통신망기술위원회(이상홍)], IC카드 프로젝트그룹(서정욱), 위원회에서의 표준개발을 제도화할 예정임.

다섯째, TTA표준의 범위를 ITU 뿐만 아니라 IETF, ATM-Forum 등 지역표준화기구로 확대하고, 이를 위하여 전문가지원의 범위도 벤치기업 등으로 확대해야 하며, 국제표준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함[통신망기술위원회(이상홍)].

여섯째, 자발적 참여인 표준화활동에 대한 결과가 소속기관에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지원 및 홍보가 필요하며 [통신망기술위원회(이상홍)], 표준화활동에 대한 평가는 장관상이나 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예정임(3P제도 벤치마킹).

일곱째, 표준화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user 그룹과 vender 그룹의 적절한 협력이 필요하며 [통신망운용관리기술위원회(석승학)] 이는 세계적인 추세인 민간주도의 표준화와의 일맥상통함으로 민간부문의 사업참가확대를 유도하기위해 부분참가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여덟째, 전날 발표한 “표준화위원회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서 방송분야의 위원회활동 저조는 이 분야를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여 표준화를 주도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굳이 TTA 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아도 표준화작업에 별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며 [방송기술위원회(목하균)], 앞으로 시험인증센터가 TTA에 설립되면 이를 활용하여 관련한 표준 및 기술기준 제·개정 등도 TTA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MIC에 건의할 것임.

아홉번째, 전파통신기술위원회에서는 무선 표준화환경이 여타의 표준화환경과는 다르다는 전파통신의 상이성 및 특수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전파통신에 대한 표준화가 정통부의 정책국에서 전파관리국 주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전파통신기술위원회(장병수)], 이를 위해 전파방송표준화자문회의의 구성을 추진중에 있음.

열번째, 표준활용 실태조사에 대한 좀더 정확하고 자세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실시해줄 것을 요청 [정보통신 S/W 기술위원회(장진호)]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차기년도부터 추진을 검토.

열한번째, 표준화사업관리와 표준화활동의 연계를 통한 표준 및 표준화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정보통신 S/W 기술위원회(장진호)], 이를 위해 표준화과제를 민간부분과 위원회간 연계 발굴토록 제도 및 절차도입을 검토 예정.

열두번째, [차세대 IC카드 프로젝트그룹(의장 서정욱)]에서는 IC카드 응용분야에서의 표준화활동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ITU나 JTC1 등에서는 이와 관련한 활동이 없으며 각 서비스별 민간 표준화활동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표준화 활성화 방안으로 1) 시장을 기반으로 한 표준화과제 선정 및 제정, 실제 활용도가 높은 표준 제정 2) 세미나를 통한 표준화과제 도출 등이 있었음.

기타 의견으로 정보통신대학원의 최준균 교수가 ITU-T 국제회의 참가단 구성 및 기고서 심의 절차개선과 ITU 회의문서 파일을 입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파연구소의 최중현 주사는 정보통신 국가표준 제정관련한 전파연구소 역할과 ITU-T/R 국제표준화 활동, 대표단 구성, 기고서 승인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3. 워크숍 개최 소감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위원회와 사무국간의 요구사항, 문제점, 발전방향 등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었으며, 평소 위원회 회의에서는 알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접할 수 있었다. 이는 위원회간 의견교환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했으리라 생각되며, 이를 잘만 활용하면 정부와 표준화기관간 또는 사업자간의 조화로운 표준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포석 마련의 장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행사는 앞으로 정보통신 표준화위원회의 발전 및 활성화 방안제시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